

PGA정복 첫 2000년대생 김주형 “꿈의 무대 우승, 영광”

PGA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승 신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바라만 보던 PGA투어 첫 우승” 감격

만 20세의 나이로 전 세계 골프 도사들이 모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을 신고한 김주형(20·CJ대한통운)은 연신 “영광”이라고 되뇌었다. 2002년생 김주형이 PGA 투어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김주형은 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 보기 1개로 9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를 적어낸 김주형은 임성재와 재미교포 존 허의 추격을 5타차로 넉넉하게 따돌리고 처음 PGA 투어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웃음으로 가득했던 시상식 후 국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에 나선 김주형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바라만 보던 PGA투어 첫 우승이다. 어려서부터 꿈꾸던 무대에서 우승해 너무 영광”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이어 김주형은 “이렇게 갑자기 (우승이) 올 줄 몰랐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반 스코어가 좋아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긴장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었다. 마지막까지 생각을 안 하다가 홀아웃하니 우승 생각이 났다”고 웃었다. 2002년 6월21일에 태어난 것 20세를 넘긴 김주형은 1932년 PGA투어 분리 이후 2013년 존 디어 클래스를 거머쥔 조던 스피스(19세10개월·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우승자가 됐다. 2000년 이후 출생 선수로는 첫 번째 우승이다. 한국 선수의 PGA 우승은 역대 9번째다. 앞서 최경주, 양용은, 배성문, 노승열, 김시우, 강성훈, 임성재, 이경훈이 정상에 올랐다. 김주형은 첫 우승을 가장 빨리 달성한 한국 선수가 됐다. 김주형은 “처음 기록에 남는 것이라 너무 영광이다. 내 꿈의 무대에서 우승하고 두 번째 최연소 기록까지 붙여 더 영광스럽고 의미가 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퀴드러플 보기를 범했을 때까지만 해도 왕좌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남은 홀에서 만회하긴 했지만, 첫 날 67타로

단독 선두 존 허에 6타나 뒤져있던 김주형은 세 라운드에서 무섭게 격차를 줄였다. 허비가 갈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9언더파를 몰아쳤다. 김주형은 “첫 날, 첫 홀 퀴드러플 보기는 안 좋은 샷은 아니었다. 안 풀리고 실수가 몇 개 있었지만 플레이가 완전히 안 되는 느낌은 아니었다. 예선 통과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홀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다”면서 “이튿날까지 좋은 성적을 내서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우승할 줄 몰랐는데 나도 놀랐다”고 떠올렸다. 2라운드 64타, 4라운드 61타 등에서 선보인 몰아치기를 두고는 “나도 모르게 요새 몰아칠 때가 있어서 놀란다. 오늘은 몰아칠 때 쉽지 않았다. 후반에 어려운 홀이 있어서 집중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대회를 앞두고 임성재, 김시우, 안병훈과의 연습 라운드에서 좋은 기운을 받았다는 김주형은 당시 벌에 쏘였던 아찔한 기억을 떠올렸다. 김주형은 “전반에는 혼자 치다가 후반에 형들과 함께 했다. 재미있게 했는데 15번홀에서 벌에 쏘여 목이 심하게 부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서 마지막 두 홀을 못 치고 병원에 갔다”면서 “막내인데 빠져서 죄송했지만 형들과 즐겁게 친 덕분에 처음 온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약관의 나이로 PGA 투어에 강렬한 인상을



김주형이 7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CC에서 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주형은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로 공동 2위인 임성재를 5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라 한국인 역대 최연소(20세 1개월 18일) 우승 기록을 세웠다.

남긴 김주형은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만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히 다짐했다. “우승 몇 번을 했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면서

쉽사리 여운을 지우지 못한 김주형은 “아직 길 길이 멀다. 지금처럼 매일 발전하려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 목표는 언젠가 이뤄지면 그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김주형, 우승으로 PGA 투어 등장 알렸다” AP통신

PGA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승 신고

만 20세의 나이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을 신고한 김주형(20·CJ대한통운)에 외신들도 주목했다. 김주형은 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 보기 1개로 9

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를 적어낸 김주형은 임성재와 재미교포 존 허의 추격을 5타차로 넉넉하게 따돌리고 처음 PGA 투어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2002년 6월21일에 태어난 것 20세를 넘긴 김주형은 1932년 PGA투어 분리 이후 2013년 존 디어 클래스를 거머쥔 조던 스피스(19세10



개월·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우승자가 됐다. 2000년 이후 출생 선수로는 첫 번째 우승이다. AP통신은 “만 20세의 김주형이 마지막 라운

드에서 9언더파 61타를 치고 5타차 우승을 거두면서 PGA 투어 등장을 알렸다”며 “김주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전날 3라운드 경기가 악천후로 중단돼 김주형에게 이날은 ‘마라톤 데이’였다. 김주형은 전력질주를 펼쳤다”고 설명한 AP통신은 “이날 오전 3라운드를 마친 김주형은 4라운드 전반을 단 27타로 끝내면서 다른 선수들을 따돌렸다. 이후 누구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골프워치’는 “김주형은 퀴드러플 보기로 윈덤 챔피언십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그를 괴롭히도록 놔두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 캐스팅’은 “지난해 이맘때쯤 김주형은 PGA 투어에 오기 위해 노력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며 “하지만 그는 현재 페덱스컵 랭킹 34위까지 오르며 골프의 가장 큰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빠르게 알렸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스포츠 캐스팅은 김주형의 영어 이름 톨이 독일 장난감 기차 ‘토마스’에서 따온 것이라고 소개하며 “김주형은 ‘토마스 더 탱크 엔진’ 답다”고 강조했다. 뉴스

광주시, 근대5종 세계선수권 2관왕 전용태 환영식 개최

남자계주·혼성계주 금메달...포상금 1400만원 수여



광주시는 8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2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전용태 환영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청 근대5종 선수단 소속인 전용태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남자릴레이 금메달(전용태·정진화), 혼성릴레이 금메달(전용태·김선우)을 합작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금2·은1·동1)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용태는 2020 도쿄올림픽 근대5종 개인전 동메달리스트다. 근대5종 세계 랭킹 1위로 명실상부한 근대 5종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환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정무창 시의회 의장·이상동 시체육회장·김영근 광주근대5종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전 선수의 2관왕 달성을 축하했다. 강 시장은 전용태에게 포상금을 수여한 뒤 “대한민국 최초 근대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2관왕, 세계랭킹 1위에 빛나는 전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태는 “세계선수권 2관왕 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 달성에 일조해 영광스럽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광주시에 감사하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KIA 이창진, SSG 폰트 제치고 데뷔 첫 월간 MVP 선정

KIA 타이거즈 이창진이 7월 KBO리그를 가장 빛낸 선수로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이창진이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7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창진은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1표(34.4%), 팬 투표 38만8327표 중 16만5021표(42.5%)를 받아 총점 38.44점으로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데뷔 후 첫 수상이다. 이창진은 기자단 투표에서 SSG 폰트(12표)에 뒤졌지만 팬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폰

트(팬투표 4만8369표)를 제쳤다. 폰트는 총점 24.98점으로 이창진의 뒤를 이었다. 이창진은 7월 한 달간 테이볼 세터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냈다. 타석에서 2번 중 1번 풀로 베이스를 밟으며 리그에서 가장 높은 출루율(0.492)을 올렸다. 또한 뛰어난 컨택트 능력으로 타율 1위(0.476)에 올랐고, KIA의 월간 안타(192개) 중 15%가 넘는 30개를 책임지며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기간 동안 16경기에서 이창진은 11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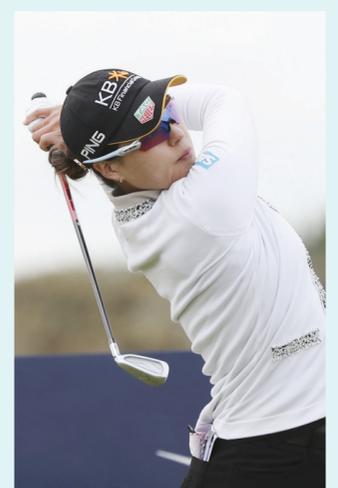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뉴스

멀티히트를 쏟아냈다. 특히 23일부터 31일까지는 8경기 연속 멀티히트로 개인 최다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월간 MVP로 선정된 이창진에게는

전인지, 4차 연장 끝에 AIG오픈 준우승 “털어낼 것...그랜드슬램 계속 도전”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부하이 우승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했던 전인지(2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4차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8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주 고틀랜드의 뮤어필드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한 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를 쳤다. 에슐리 부하이(남아공)와 연장 승부를 벌였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했다. 전날 2위 전인지에게 5타차로 앞섰던 부하이는 15번홀에서 트리플보기를 범하는 등 네 타를 잃었다. 마지막 홀까지 나란히 10언더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둘은 연장 승부를 치렀고, 네 번째 홀에서 부하이의 우승으로 끝났다. 전인지는 “그랜드슬램이라는 또 다른 타이틀 때문에 스스로 부담감이 있었다. 우승을 못해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속상하지만 너무 쉽게 가면 그렇지 않겠느냐”며 “내년도 있고 내년에도 있다.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2015년 US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올해 6월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렸다. 3라운드까지 5타 차이로 뒤지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승부를 연장장으로 끌고 갔기에 아쉬움이 적었다. 이에 대해 전인지는 “골프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스포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눈앞에 놓인 샷에 집중하려고 했다. 플레이오프(연장)까지 가게 되는 경기를 했



다. 끝에 조금 부족해서 많이 아쉽지만 아쉬운 것은 인터뷰장에서 나가는 순간에 털어내고 싶다”며 “그렇게 해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푸시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탰다. ‘연장 승부를 통해 얻은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본인이 어느 부분을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내가 대회에서 잃은 것, 아쉬운 것만 보게 된다면 그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것보다 내가 얻어 가는 것, 경험으로 받은 것을 보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뉴스